

여름 특별기획전 '추상, 형태에 반하다'

전북도산림박물관, 최원·박인현·문리·박승만 작가 회화·조각 추상작품 15점 전시

전라북도산림박물관은 특별기획전을 열어 추상미술의 형태미를 관람객에 소개한다. 전북산림박물관은 8일부터 여름 특별기획전 '추상, 형태에 반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수세기 동안 예술의 원천이 되어왔던 산림(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목적으로 대중성과 다양성의 흡수를 위해 준비한 특별 기획전이다.

작품은 현대미술 추상작품(회화, 조각) 15점이다. 추상작품은 처음부터 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작가의 내면세계, 감정의 변화, 무의식에 집중하므로 화면은 즉흥적이고 표현은 섬세하며 의식의 흐름은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이번 전시는 색채의 자율성, 대상의 분해와 재구성, 즉흥적 시각언어로 연결되는 추상미술의 형태미를 소개한 것으로 최원, 박인현, 문리, 박승만 작가가 초대됐다.

최원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합한다. 우연이 필연의 모서리인 듯 세상살이 모든 감정 역시 긴 여정 속 집적된 산물이다. 큼직한 평범의 동시대발적 발전은 우연을 가장하여 오묘한 빛으로 발산한다.



문리 물-넘쳐흐르다, 광목 위에 먹.

박인현은 우산을 통해 작가가 바라본 세상을 시각화한다. 작가의 우산은 때로 산수가 되고

허공 속 새들의 날갯짓이 된다. 작가는 대상의 탐구와 재해석을 통해 구상과 추상을 반복하면서 화면의 구성미를 찾아간다.

문리의 회화는 그림에서 가장 기본인 획(劃)을 탐구한 결과물이다. 형상을 덜어내고, 비운 후에 남은 획이다. 광목 위에서 일 획으로 표출한 행위의 흔적이다. 물을 운용한 수묵화에서, 먹은 오묘한 물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박승만의 조각은 자기 유사성에서 출발한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이다. 프랙탈 구조를 기본으로 일체나 뿌리 형상을 반복적으로 확대하면서 나무와 바람을 품은 숲을 완성하고 있다. 반복적 과정은 숲의 생성과 소멸을 의미한다.

아울러 전북산림박물관은 가을(10월~12월)에는 '전통목가구전'이 예정돼 있다. 관람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에는 개관시간을 한시간 앞당겨 운영한다.

허태영 전북산림환경연구소 소장은 "산림이 사람에게 주는 치유와 회복처럼 작품에 숨겨진 자유와 질서가 관람객에게 새로운 영감과 힐링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뛰는 시간 '생명의 힘' 느끼는 행복한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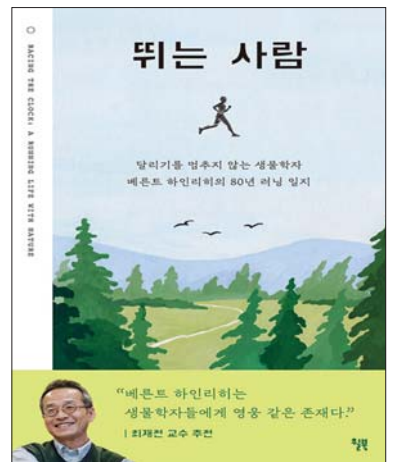
80세 생물학자, '뛰는 사람'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과학에서 비교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생물학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에 의해 제한된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뛰는 사람'(월북)은 제목대로 80세의 나이에 100킬로미터 달리를 도전하는 베른트 하인리히의 이야기다. 주목할 점은 그가 생물학자로서 '달리기'와 함께 '생물'과 '나이' 둘에 관해 사유했다는 것이다.

'현대의 소로'라 불리는 그의 삶은 단순하다. 산골 통나무 집에 살며 생물들을 관찰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글을 쓴다. 그러나 그의 일상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뛰는 것'이다. 하루에 30킬로미터를 꾸준히 달린다는 그에게는 뛰는 시간이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베른트는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나이 들과 달리의 상관관계', '생명체의 주기와 노화의 비밀'을 밝힌다. 젊은 시절, 전미 100킬로미터 울트라마라톤 대회 우승자이자 신기록 보유자인 그는 노화가 진행된 몸으로도 이처럼 장거리를 달리는 것이 쾌감은 일인지



직접 도전하고 탐구한다.

달리기 사람을 중심에 뒀지만 저자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관찰 연구한 생명체들의 생존 방식과 특이점들에 대해서도 들려준다. 한참을 달리다가도 눈에 들어오는 생명체를 만나면 잠시 멈춰 '생명의 신비'를 논하는 그는 '뛰는 사람'인 동시에 여전히 생물학자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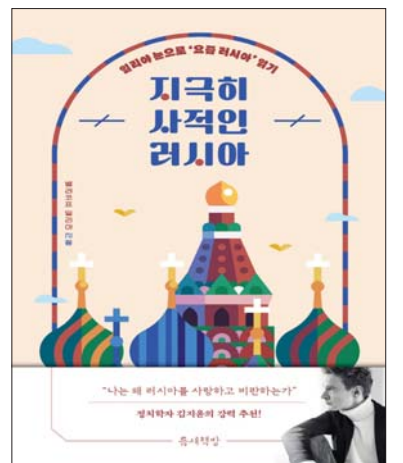
'비정상회담' 러시아 대표가 전하는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러시아 출신 방송인 블라디코프 일리아가 러시아를 소개하는 책을 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난 일리아는 2016년 한국에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현재 수원대학교 외국어학부 러시아어 및 러시아 문화 객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JTBC TV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러시아 대표로 출연한 바 있다.

그가 쓴 책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특재책방)는 현재 러시아 사람들의 정서와 생각을 읽고 우리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보여 준다.

이 책은 러시아에 대한 편견, 소련 붕괴 후 요즘 러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 러시아의 문화를 소개한다. 러시아인의 세계관을 보여 줌으로써 러시아를 설명한다.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보여 준다. 왜 독재를 옹호하게 됐는지, 미국이나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뉴시스

국립민속국악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30년 역사 담은 영상 상영·유공자 포상 등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지난 6일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민속국악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정렬 문화예술정책실장과 김영운 국립국악원장, 이경훈 국립무형유산원장, 이강현 아시아문화

전담장 등 문화예술분야 기관장과 김일구, 김무길, 안수선, 김영자 등 국악계 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경식 남원시장,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등 남원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민속국악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의 30년 역사를 담은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및 △타임캡슐 봉인 행사 등을 통해 그동안 국악 및 민속국악원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치하하고, 민속국악원 미래 10년을 계획하는 자리를 가졌다.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민속악의 보존과 전승 및 수준 높은 공연과 교육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알려 왔다"며, "앞으로도 민속음악의 분거지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념식이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는 제4회 대한민국 판놀이 개막공연 '창극 춘향전-몽룡을 기다리며' 공연이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진행될 판람은 사전 예약제로,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은 지난 6일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민속국악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실군, 찾아가는 국악연수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덕진서원, 임실에총회관에서 '찾아가는 국악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라북도 도립국악원과 연계하여 군민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며, 코로나로 지쳤던 군민들에게 활력을 심어줄 전망이다.

군에서는 판소리, 가야금, 무용 등 전통국악

3개 과목에 대한 강습을 임실에총회관 및 임실문화원에서 군민에게 국악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강습료와 악기는 무료 제공 계획이며, 군은 상시적으로 강습생을 모집하여 균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의는 임실군청 문화체육과(063-640-2314)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